

이범호 추격포

고영민 쇠기포



쿵... 쿵... 쿵... 불 방망이 '도깨비' 혼냈다



김태균 역전포



한국 장단 12안타 폭발... 멕시코 8-2 제압
내일 낮 12시 日과 또 격돌 "무조건 꺾는다"

KIA 재간동이 이용규 발야구 진수 뽑내
윤석민도 세타자 연속 삼진쇼 승리 주역

통쾌한 홈런 세 방이 '난적' 멕시코를 무너뜨렸다.
한국야구 대표팀이 16일 미국 샌디에이고 팻파르에서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 멕시코와 1차전에서 이범호·김태균·고영민의 홈런포에 힘입어 8-2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정현욱-정대현-김광현-윤석민-오승환으로 이어진 계투진은 멕시코의 강타선을 6과3분의 1이닝동안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철벽계투'를 선보였다.
한국은 쿠바를 6-0으로 꺾은 '속적' 일본과 18일 낮 12시 준결승 티켓을 놓고 또 다시 맞붙는다.
멕시코전 승리는 빠른 투수교체가 주효했다. 삼자범퇴로 1회를 마무리 지은 선발 류현진이 2회초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으며 흔들렸다. 2개 안타와 볼넷 1개로 2사 만루, 9번 오해다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0-2가 됐다.
이어진 2회말 한국은 이범호의 솔로포로 추격을 시작했다. 좌전안타로 출루한 이용규는 빠른 발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며 도루에 성공한 뒤, 박기혁의 내야땅볼을 처리하던 멕시코 2루수 에드가 곤잘레스가 1루에 악수구 한 사이 홈까지 파고들며 귀중한 1점을 보냈다.
2-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3회초 류현진이 또 다시 2사 1-2루의 위기를 맞아 김인식 감독은 과감한 투수교체를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마운드에 오른 정현욱은 바스케스를 투수 앞 땅볼로 돌려세우며 추가 실점의 위기를 막았다.
마운드가 안정되자 타력이 살아났다. 4회말 4번 김태균이 역전 솔로포를 쏘아 올려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고, 5회말에는 앞선 수비시 정근우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고영민이 한국의 세 번째 솔로포로 멕시코 선발 페레즈를 침몰시키며 4-2로 도망쳤다.
7회말에는 승부의 쐬기를 뺏는 '발야구'가 전개됐다.
선두타자 고영민이 상대 허를 찌르는 기습 번트로 진루에 성공한 뒤, 김현수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무사 1-2. 한국은 이진영을 김현수의 대주자로 내보낸 뒤 더블스틸을 성공시키며 멕시코 마운드를 뒤흔들었다.
'발야구' 공습에 멕시코 마운드가 흔들린 사이 김태균은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용규의 희생타와 박기혁의 우전안타를 결정한 한국은 7회에만 4점을 뽑으며 8-2로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홈런과 적시타로 3타점을 추가한 김태균은 이번 대회에서 9타점으로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앞서 열린 일본과 쿠바의 경기에서는 마쓰자카가 다이스케를 앞세운 일본이 12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6-0으로 쿠바를 제압했다.
선발로 등판한 마쓰자카는 6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뽑아내는 등 '아마 최강'의 쿠바를 5안타 무실점으로 돌려세우며 일본의 완승을 이끌었다.
'괴물투수' 마쓰자카를 앞세운 일본과 '해결사' 김태균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은 2라운드 A조 첫 경기 승자로 18일 승자전에 진출, 이번 대회 세 번째 격돌을 앞두고 있다.

추격포 이범호: 0-2로 뒤지던 2회말 한국의 홈런 공세를 알리는 솔로포를 쏘아올리고 있다.

역전포 김태균: 2-2의 팽팽한 공방이 펼쳐지던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역전 솔로포를 때려내고 있다.

쇠기포 고영민: 대수비로 교체해 들어가 5회말 3-2의 상황에서 멕시코 선발 페레즈를 무너뜨리는 솔로홈런을 장식하고 있다.

이용규의 '발'과 윤석민의 '팔'이 멕시코를 잠재웠다.
KIA 타이거즈 투·타의 핵 이용규와 윤석민이 16일 멕시코와의 WBC 2라운드 첫경기에서 각각 1타점 1득점 1도루, 세 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하며 승리의 숨은 공신이었다.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용규는 경기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2타수 2안타, 2개의 희생타를 기록하며 '만점활약'을 했다. '발'로 경기의 흐름도 바꾸었다.
1-2로 뒤지던 2회말 좌전안타로 출루한 '날쌘돌이' 이용규는 2루를 훔칠 기세로 실세 없이 투상을 움직이며 상대 배터리를 괴롭혔다.
멕시코 선발 윌버 페레즈는 타자 박경완에게 투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도 이용규를 견제하느라 집중력을 잃으며 풀카운트까지 가는 어려운 승부를 펼쳤고, 이용규는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도루에 성공해 멕시코를 흔들었다.
'넋이나간' 멕시코는 이후 박기혁의 평범한 땅볼을 악수구했고 그 사이 이용규는 홈까지 파고들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무사 1-2루에서 완벽한 번트 솜씨를 선보인 이용규는 7회 희생플라이로 타점까지 올리는 등 적재적소에 재치있는 플레이로 승리 기반을 다졌다.
이용규가 멕시코 마운드를 침몰시키는 동안 윤석민은 멕시코의 강타선을 묶으며 승리를 지켰다. 4-2의 2점차 아슬한 리드가 이어지던 7회초, 2사 1루 상황에 등판한 윤석민은 호르헤 간투를 3구 삼진으로 잡아내며 상대 추격의지를 꺾었다.
윤석민은 8회에도 스타 헤이스톤과 호르헤 바스케스에게 삼진을 뽑아내며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주역 이용규와 윤석민은 WBC 4강을 향한 일본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팀 합류 전 "일본을 꺾고 컵대를 납작하게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던 두 선수는 아직 일본에 이렇다할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다.
이용규는 일본전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고, 윤석민은 일본전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용규는 멕시코전 활약으로 일본전 출격을 예약해두고, 윤석민도 투구수 조절에 성공해 일본전 등판이 가능하다.